

광주 빌딩 투자수익률 전국 최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오피스 0.44%·매장용 1.16% 불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광주지역 상업용 빌딩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투자 수익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해양부가 광주를 비롯해 7대 주요 도시에 있는 6층 이상 오피스 500동과 3층 이상 매장용 1000동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광주 오피스 빌딩 투자수익률은 자산가치 하락으로 0.44%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

했다. 인천 2.10%, 서울 2.08%보다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고, 전체 평균(1.83%)보다도 턱없이 낮았다.

매장용 빌딩 투자 수익률도 전분기보다 0.57%포인트 떨어진 1.16%로 울산(0.83)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 투자 심리 위축, 아파트형 공장 증가, 리츠 신규 설립 부진 등이 겹쳐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광주지역 빈 사무실도 조금 늘었다.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전분기보다 0.4%포인트 오른 15.2%로 대전(26.6%), 울산(25.0%)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매장용빌딩 공실률도 전분기보다 0.8%포인트 하락했지만 15.3%로 여전히 높았다.

빈 상가와 빈 사무실이 많아서인지

임대료는 낮았다. 금남로와 북구지역을 중심으로 광주의 3층 이상 오피스 빌딩 임대료는 1㎡당 100원 상승한 5200원으로 대전(42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저렴했고, 전국 평균(1만5400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1층 기준 매장용도 1㎡당 100원 오른 2만600원으로 전국 평균 4만1600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농협 F1 성공기원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2일 오후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 코리아그랑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F1 대회 성공기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13일까지 농협 전국 영업점에서 진행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광주 7월중 아파트 분양 '제로'

전남도 400세대 그쳐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에서 분양된 공동주택 물량은 400여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7월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및 8월 계획'에 따르면 전남지역 공동주택 분양실적

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무안 성내 임대아파트 493가구가 전부였으며 광주는 분양 물량이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실적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지방(1271가구)의 경우 전남(493가구), 경남(394가구), 전북(319가구), 울산(65가구)을 제외하면 아예

분양 물량이 없었던 반면 수도권은 분양실적이 모두 4447가구가 집계됐다. 7월 분양 물량은 6월(수도권 1만 5052가구, 지방 1만 2208가구)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3분의 1, 지방은 10분의 1가량으로 줄었으며 공공부분(63%)이 민간(37%)보다 많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

거래 부진 등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건설사들이 분양을 늦춘 것으로 분석했다.

1~7월 누계 실적은 전국 12만9727가구, 수도권 8만9005가구로 최근 5년 동기 대비 수도권은 39% 증가했지만 전국적으로 7% 감소해 지방에서의 분양이 많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8월에는 수도권 5354가구, 지방 4349가구 등 전국적으로 9703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광주·전남 모두 현재까지 분양 계획은 없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북은행장 “광주은행 인수 나서겠다”

김 한 전북은행장이 2일 최근 매각이 확정된 광주은행의 인수 의사를 밝혔다.

김 행장은 “광주·전남지역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광주은행 인수를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며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데는 자신 있다”며 인수에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지방은행 인수합병은 시중은행과 달리 그 지역정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 우선 지역사회의 의사 결정과 여론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상공인들은 합병이 아닌 지역 토착자본으로 광주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지난 3월 취임한 김 행장은 2012년

까지 현재의 자산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자산 15조원, 당기순이익 15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최근 서울에 새 지점을 개설하는 등 공격경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밥상물가’ 급등... 장보기가 겁나네

포도 110%·고구마 47%·열무 37% 등 ‘쑥쑥’

광주·전남 7월 소비자 물가 전년 대비 2.7% ↑

지난달 장마철과 이상기온 등 영향으로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7%씩 올랐다.

특히 이달부터 전기, 가스요금, 고속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과 설 탕값이 줄음이 인상돼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0 7월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5%, 전년 동월대비 2.7% 상승했다.

채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전달보다 0.4%, 전년 동기보다 2.9% 올랐다.

특히 ‘밥상물가’로 꼽히는 신선식품과 농수축산물이 지난달보다는 각각 4.4%, 2.5%가, 지난해보다는 16.2%, 9.0%씩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전월 대비 포도(110.1%), 고구마(47.3%), 열무(36.7%), 시금치(35.4%), 상추(28.9%), 마늘(23.2%)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장마와 더운 날씨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채소류가 급등한 것이다.

또 자동차용 LPG(30.7%), 복어채(28.9%) 등 일부 공업제품도 1년 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남 지역도 소비자 물가가 전



월대비 0.4%,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7%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채소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농수축산물과 신선식품이 1년 전보다 8.6%, 14.8%씩 증가했다.

포도(105.1%), 상추(47.2%), 시금치(30.5%) 등 채소류를 비롯해 카레(23.3%), 콘도이용료(19.1%) 등이 전달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이은미기자 emlee@

코스피 연중 최고 1800선에 바짝

코스피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2년2개월여 만에 1,780선 위로 올라섰다.

8월의 첫 거래일인 2일 코스피는 22.94포인트(1.30%) 오른 1,782.2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가 1,780선 위에서 거래를 마친 것은 1,781.67을 기록한 2008년 6월9일 이후 2년2개월여 만이다.

이날 지수는 미국 뉴욕증시의 혼조 마감에도 최근 이틀간 진행된 조정에도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770선을 회복하며 장을 시작했다.

이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 속에 프로그램 매매까지 가세하면서 지수는 잇따라 연고점을 경신하며 1,784.10까지 고점을 높였다.

기관이 연기금을 앞세워 1262억원 을 순매수하고 외국인도 9거래일째 ‘사자’에 나서 652억원 규모의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연합뉴스

光銀 ‘하이팜론’ 판매

광주은행은 2일부터 농수축산업 관련 기업을 위한 대출상품 ‘하이팜론’을 판매한다.

‘하이팜론’은 광주·전남 지역에 영농조합법인, 농축산 사업자, 농수축산물 저장·가공·유통업체 등 농수축산업 관련 기업에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이다.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광주·전남 지역 농수축산업 개인사업자나 법인 이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급일 기준 대출금리는 최저 5.14% 수준이지만 중소제조업체나 녹색인증기업, HACCP 지정업체, 시·도지사 품질인증업체 등에는 신용등급과 담보종류에 따라 0.3%포인트에서 최고 0.7%포인트까지 특별우대금 리 혜택을 제공하며 신용조사수수료 등도 면제해 준다.

광주은행 기업영업전략부 이덕범 팀장은 “하이팜론은 광주·전남 산업특성을 반영한 대출상품으로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의 대표 대출상품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지역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돕겠다”

최은성 의원은 호남영업본부장 동성 지원은 물론 경영컨설팅을 제공해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며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은행,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 고객만족도가 높은 은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일 취임한 최은성(55) 의원은 호남영업본부장을 “기업의 유

최은성 의원은 광주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외환은행에 입사해 광주 서방지점장, 서울 강남외환센터지점장과 여신관리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우전해수북장 매콤 운렐

슬로시티 송도

엘도라도리조트

시니어스 게임은행 (대신회 후원번호)

▶ 정기예금: 15,000원/주회 / 18,000원/주회

광주 1월 지원금

Dinner Show 송태관

2010. 8. 20(금) 19:00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 홀 ₩150,000 (부가세 포함)

예약 및 문의: ☎02-779-6300 / 예약실: ☎02-779-4711-2 | 후원 및 후원 (주)대림인투스 신일테크호텔